

●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 용장사지

#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무슨 이유로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절에 가는 것일까? 이러한 소박한 질문에서 필자의 불교신앙에 대한 여정이 시작된다.

석굴암의 본존불을 바라보며 지른 '아!'라는 탄성 한마디는 어떠한 신앙도 뛰어넘는 절대 경이감을 느끼게 해주고 중국 산시성 윈강 석굴에서 만난 거대한 석가모니 불상은 시대를 뛰어넘어 그들의 믿음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불교신앙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시작하려고 한다.

한국에 불교가 시작된 것은 서기 372년, 소수림왕

반인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지를 상상하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상상이다.

당시 일반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인 형태는 남산 용장사지에서 잘 드러난다. 경주남산을 보지 못하면 신라를 반도 보지 못했다는 말이 있다. 경주 남산은 그 만큼 신라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

경주 남산 용장사지는 동서 약 70m, 남북 40여m 되는 지역에 크고 작은 돌 축대가 남아 있는 절터이다. 조선 초, 말년에 설장(雪丈)이란 법명으로 활동한 김시습이 이 절에 기거하면서 <금오신화(金鰲神話)>를 썼다고 하니, 긴 세월 동안 용장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유가조 대덕(大德)인 태현은 경주 남산 용장사에 살았다. 절에는 자씨(子氏)상이 있어서 태현은 항상 그 주위를 돌았는데 그러던 상도 따라서 얼굴을 돌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유가법상종 태현 스님의 미륵보살에 대한 신앙이 등장한다. 경주 남산 용장사는 미륵신앙의 성지 중 하나인 것이다.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중국 당(唐)대 법상종을 대표하는 현장(玄奘)이 아야무카(Ayamukha)국으로 가는 도중 도적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미륵보살을 염하며 미륵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다.

그의 제자 규기(龜基)도 미륵상을 만들어 도술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법상종의 중요한 인물들이 미륵신앙에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통일신라에서 유행했던 법상종 계열의 인물들도 이러한 미륵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로 전래된 불교에 특히 신라불교에서 도술천 왕생 등 미륵신앙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용장사지에는 몇 군데의 건축터와 석대, 3기의 탑지, 보물 제187호인 석불좌상과 보물 제186호인 3층 석탑, 보물 제913호 마애여래좌상이 남아 있다. 이 중 목없는 석불좌상이 미륵상으로 보인다. 불상이나 보살상이야 하는 의문이 남기는 하지만 용장사지의 석불좌상이 남아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남산을 불국토로 만들었던 신라인들이 죽어서 다시금 윤회세계로 향해 먼 훗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문우왕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동국대 대학원 박사 '북위불교와 석굴조영 연구' 공저 <원주의 유적과 불교>, <한중불교교류사 연구>



경주 남산 용장사 석불좌상(慶州南山長寺石佛坐像)(보물 제187호). 동근 모양의 대좌에 앉아 있는 불상으로 머리 부분은 없어졌지만 나머지 부분은 온전히 남아 있다. 특이한 대좌 표현과 대현 스님의 교사와 연관되어 보는 이들에게 신비감을 더해준다.

2년에 전진(前秦)의 왕 부견(苻堅)이 승려 순도(順道)를 고구려에 보내서 불상과 불경을 전하면서다.

한국 사람들이 접한 최초의 승려와 불상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을 것이다. 흔히 한국불교사에서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를 수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충동이 없었지만 신라에 이르러서는 기존 세력과 갈등을 겪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서 상으로는 별다른 기술이 없기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난해 보이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사람들도 불교를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머리를 깎고 낯선 불상을 가져온 그들의 모습에서 일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46 선암사 해우소



"바람이 영뎡이 밑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래서 영뎡이가 허공에 뜬 것처럼 상쾌하다. 풍을 누기가 미안할 정도로 행복한 공간이다."

<갈의 노래>, <남한산성>의 소설가 김훈은 <자전거여행>에서 선암사 해우소를 배설의 낙원이라며 승주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통이 마려우면 참았다가 선암사 화장실에 가서 누라고 했다. 아마 이른 봄이었던 것 같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창살 사이로 매화나무며 눈 덮인 겨울 숲을 보며 불일을 보았던 것 같다.

"이 화장실에서도, 심하지는 않지만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한다. 이 냄새는 역겹지 않다."

그는 두엄 속에서 서서히 삭아가는 그 냄새를 '마땅한 냄새'라며, 그것을 '그리운 것' 들 중의 하나로 이야기했다. 그리운 것들이 늘어난다.

##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 제8도 성중묘화공양만약불토장엄

제 8도 성중묘화공양만약불토장엄은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의 찬란함을 하루에 여섯 번씩 내리는 만다라 꽃비로 표현하고 있다. 극락 세계에는 천녀들이 하루에 여섯 번씩 미묘한 꽃을 바꾸기에 담아 심판 역 불국토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가지각색으로 어우러져 찬란하게 빛난다고 한다.

제 8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름에 싸인 누각의 난간 안에 두 천녀들이 꽃을 받쳐 들고 있고, 그 위로 꽃들이 흩날리는데 이러한 도상이 5쪽 후반부와 6쪽의 전반부의 1/2부분까지 이어진다.

"황금으로 이루어진 땅 위에는 하루에 여섯 번 천상의 만다라 꽃이 비 오듯 흩날리고 있느니라.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黃金爲地 晝夜六時 雨天 曼陀羅華 舍利佛 極樂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무량수경>에는 이 극락세계의 꽃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맑은 바람은 꽃잎을 불어 와서 두루 불국토에 뿌리는데, 꽃잎은 가지각색으로 어우러져 찬란하게 빛나고 그윽한 향기를 사방에 풍기느니라. 꽃잎을 밟으면 네 차나 들어가고 밟을 들면 다시 전

과 같이 올라오며 꽃잎의 솔모가 다하면 문득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사라져 한 송이의 흔적도 없으며, 때가 되면 바람은 다시 꽃잎을 불러 오는데, 이와 같이 밤낮 여섯 차례 되풀이 되느니라."

도상으로는 전면에 천녀들이 극락을 음악으로 합주하여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는 모습과 나뉘어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천녀들이 합주하는 음악소리와 함께 천녀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꽃잎을 뿌려 극락국토를 만다라 꽃으로 장엄하고 있는 장면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다.

아름다운 음악소리에 맞추어 미묘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꽃잎이 흐드러지듯 흩날리는 모습이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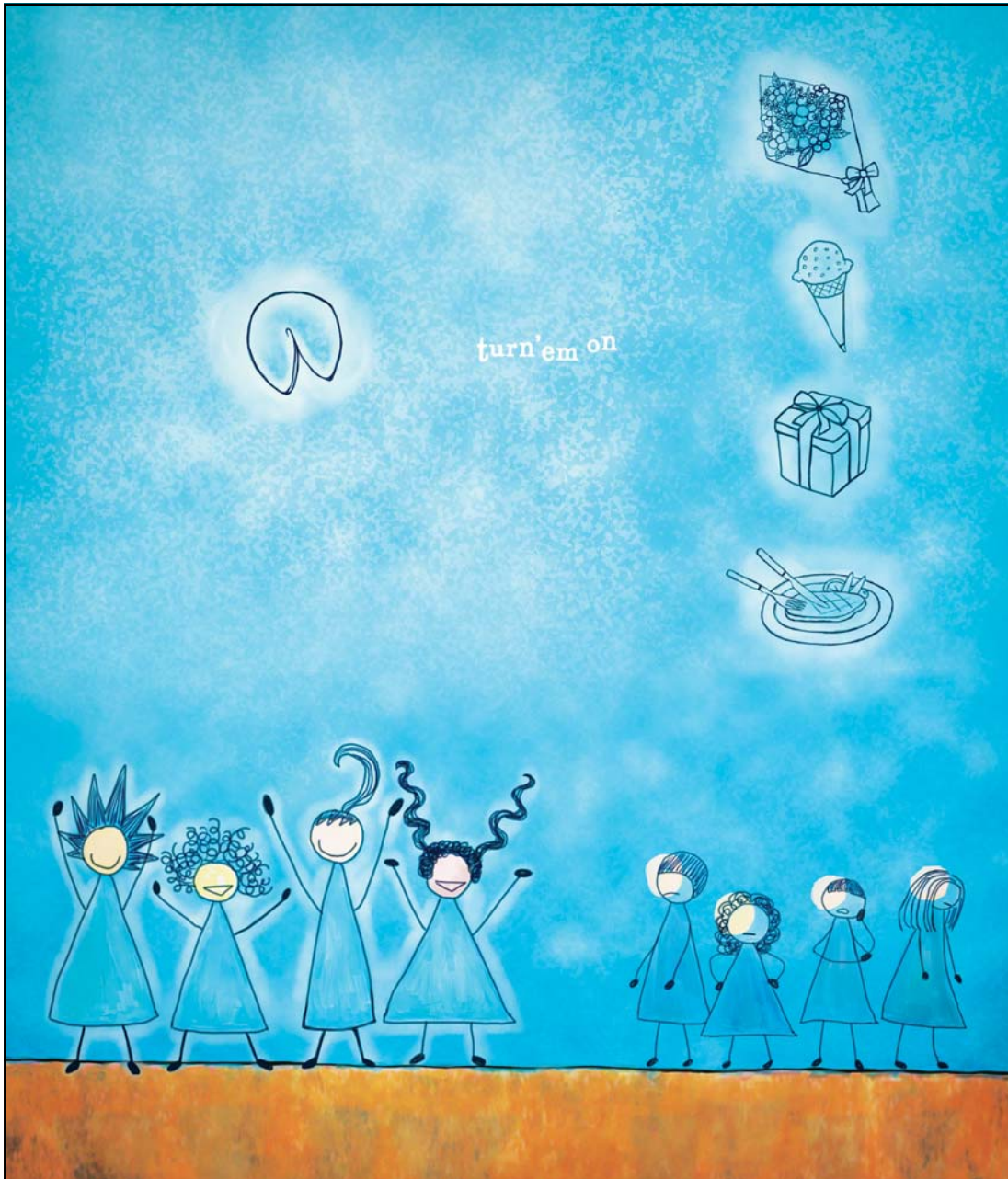
무나 아름답게 눈앞에 다가온다. 극락이 어디에 있는가. 서방정토 저 먼 곳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극락이 있다고 옛 조사들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속 극락세계가 열린다면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꽃비 속에 하나가 되어 마음껏 이 생명의 축제인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 모두 극락세계에 흠날리는, 만다라 꽃비를 우리 마음속으로 끌어들여 하루에 여섯 번씩 번뇌 망상으로 찌들어진 현실의 세계를 아름다운 축제의 장으로 변화시켜 보자.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8도 성중묘화공양만약불토장엄(盛衆妙華供養萬億佛土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cm.



## What is Buddha Cookie!!

# 법과(法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